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아주 평범해져라

학승이 물었다.
“극히 작은 차이라도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못 미치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상대의 그릇에 맞추어 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굽어진 거야.”

問 毫釐有差時如何 師云 應機時如何 師云 屈

도는 지극히 작은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중에서 작은 차이는 태산과 같은 차이가 있다. 설사 사람의 근기에 맞추느라 약간 벗어났다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

옛 스님들은 천리 절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앉아서 죽고 서서 열반에 든다 해도 절대 근접하지 못한다고도 했으니, 도대체 도의 꼬리를 어떻게 해야 밟을 수 있을까? 방법은 있지만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입니까?”
스님은 손을 펴 웃음을 띠었다.

問 如何是沙門行 師展手拂衣

수행자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부 평범해지다가 아주 평범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도천(道泉)에서 나오는 옥수(玉水)를 맛보게 된다. 그러기 전에는 자부

떨어 내어라. 옳다 그르다, 사랑도 미움도.

학승이 물었다.
“불조(佛祖)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는 사람이 없다.”

問 祖佛命不斷處如何 師云 無人知

이 일을 아는 자라면 붓다와 조사의 명맥을 끊지 않고 계속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부처는 부처인 것을 모른다. 조사는 조사인 것을 모른다. 이 땅에 부처와 조사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명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스승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것이고 제자가 귀 없는 술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중생에 응해주는 방편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중생에 응해주는 방편이라고 해.”

問 未審權機喚作什麼 師云 喚作權機

깨달은 자도 방편을 방편이라 하고 도를 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내밀한 뜻은 중생과 부처가 확연히 다르다. 조선시대 진묵 스님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철썩하는 속인

들이 진묵 스님이 곡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불러들이므로 함께 참석하여 곡자와 물고기탕을 먹었다. 그런데 한 속인이 종이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야유를 하자, 진묵 스님은 영덩이를 끼고 앉았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모두 살아서 나와 항문에서 개울로 떨어져 내렸다. 잠시 후 진묵 스님은 말했다. “나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하여 먹는다.” 이 말에 대한 내밀한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최근에 총림에 들어와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잘 지시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총림에 들어오기 전에도 몰랐을 거야.”

問 學人近入叢林不覺 乞師指示 師云 未入叢林更是不會

머리 깎고 염의를 입고 수행함은 뭘 알려함이나. 처음에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선객이 만행하면서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묻자, 이상하게 모두 ‘모른다’ 고만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범문을 들어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노승이 되어 선객들이 자신에게 물으러 오자, 할 수 없이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한 사미승이 “왜 모른다고만 대답하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모른다는 것만 알 뿐이야.”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미승이 “틀렸습시다.”라고 하는 말에 그만 도를 깨닫게 되었다. 자, 과연 노승이 무엇을 대답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④



기쁨이 생겨난 자에게 몸이 안온해 집니다 몸이 안온해 진 자에게 행복이 느껴집니다

(절리아숫타(Jāliyasutta))

기쁨이나 즐거움을 싫어하고 슬픔이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디 사람뿐이겠는가. 모든 존재는 다 슬픔을 여의고 기쁨을 추구하며,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구한다. 예외는 결코 없다.

기쁨, 즐거움, 안락, 안온 등의 대표적 상징어(象徴語)의 자리에 행복이 있다. 행복이라는 말이야말로 모든 존재들이 원하고 구하는 바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많은 기업의 광고는 다투어 ‘행복’을 팔고 있다. 행복이라는 말에 약한 우리 인간존재의 속성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말한다. 극락이라고 하는 이상세계 역시,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말이다. 얼마 전 어떤 ‘행복전도사’의 자살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추구하는 요즘의 트렌드가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게 하지 않는가? 그분은, 나도 가끔 TV를 통해서 봤던 분이다. 토크쇼나 아침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에서 행복을 설파하곤 했다. 하지만 본인이 정작으로 난치의 병에 걸리자,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알던 분에게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그랬다. 개인적으로, 난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의 크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행복전도사’의 마지막이 자살로 마감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분이 펼쳤던 생전의 ‘행복론’에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분이 펼쳤던 행복론의 실재는 어디 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곳에, 더 나아가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곳에 이미 문제가 싹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행복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행과 행복이 교차되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인생의 참모습이 아닐까?

불행이 없을 수 없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질병이 없을 수 없다. 실패가 없을 수 없다. --- 이것이야말로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불행을 어떻게 맞이하며, 불행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행복론’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종교는, 특히 우리 불교는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완벽한 행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그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버림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때 ‘이 세상’은 탐욕이기도 하고, 악의와 원한이기도 하며, 게으름과 무기력이기도 하고, 흥분과 회한이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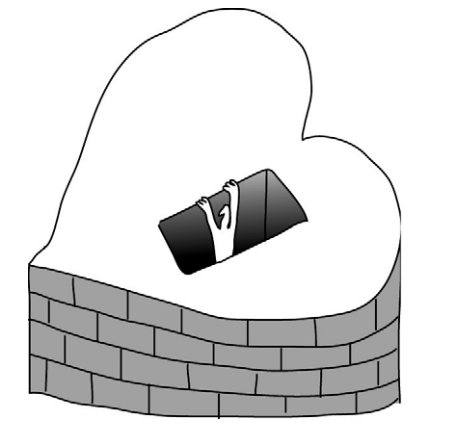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고, 의심이나 의혹이기도 하다.(전제성 옮김, 『다가 나가야, 한국불교리성전학회, pp.362-363. 참조.) 그러한 장애들, 즉 ‘이 세상’을 다 버린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장애들을 다 버리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을 얻은 자에게는 몸의 안온이 따라온다. 몸이 안온해 진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주의하라. ‘행복’이 결코 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느끼는 자에게 마음이 집중됩니다.”(p.363)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행복은 결코, 우리의 삶이나 수행에서 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을 배척하지 말자. 불행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역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전도사’의 자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늦었지만, 그분의 명복을 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③6

업의 주체는 ‘나’지만 영원한 ‘나’ 없다

업-③ 업과 무아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은 현재에, 현재의 업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자신이 짓는 업의 작용력을 인식하고 노력하여야 따라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의 주체는 말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 자신이 과거·현재·미래의 삼체에 걸쳐 사제와 연기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수행하게 되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런데 불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는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존재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업을 짓는 행동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삼체에 걸쳐 행하는 업의 주체는 무엇이고,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불교에서는 나지도 않고 멀하지도 않는 영원한 실체로서의 주체는 부정하지만 변화하는 주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현재의 업의 주체는 과거의 업의 주체와 완전히 동일하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즉 생멸하고 변화하는 현상적인 존재로서의 주체이고, 업과 업의 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과 업의 주체를 동일시 하는 관점에서 업을 분석해 보면 업은 (1) 선

악의 의도, (2) 의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 (3) 의도나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남게 되는 그 행위의 영향력으로서의 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선악의 의도’란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나 목적을 말한다.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업(惡業)으로서 뚜렷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운전미숙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했다면 우리는 운전자가 잘못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란 선하거나 악한 의도로 실제로 신체나 언어에 의해 행해지는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선하거나 악한 의도를 의업(意業), 실제로 행해지는 신체에 의한 행위를 신업(身業), 실제로 행해지는 언어에 의한 행위를 구업(口業)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는 신업에 의한 폭력, 살인 등에서부터 구업에 의한 사기, 헐바, 이간질 등에 이르기까지 의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반드시 신·구·의 삼업에 다 갖추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행동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마

는 경우도 있다. 업은 의도와 행위, 다시 말해 목적과 결과가 다 갖추어져야만 그 힘을 발휘한다.

세 번째 ‘의도나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남게 되는 영향력’은 일종의 습관에 의한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던 반드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영향력이 남는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부 습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힘들어도 참고 꾸준히 하다보면 열심히 한 공부의 영향력이 잠재적인 힘으로 남아 다음에 하는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 안 좋은 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어렵지만 시작한 도둑질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도둑질의 영향력이 잠재적인 힘으로 남아 다음의 도둑질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질 수밖에 없고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결정권도 자신에게 있으며 업을 변화시킴으로써 업의 영향력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무아설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업의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日 龍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불교 도서

붓다북

도서 · 음반 · 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953-7181

오프라인 매장 운영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명상 음반

불교 용품